

2015학년도 6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국어 영역 •

정답

1	④	2	⑤	3	③	4	①	5	③
6	②	7	⑤	8	①	9	③	10	③
11	①	12	④	13	③	14	②	15	④
16	③	17	⑤	18	④	19	①	20	③
21	④	22	②	23	④	24	②	25	⑤
26	②	27	④	28	④	29	①	30	②
31	①	32	④	33	③	34	①	35	⑤
36	④	37	⑤	38	③	39	③	40	③
41	⑤	42	②	43	②	44	①	45	④

해설

[1~5] 화법

1. [출제의도] 의사소통 방법 파악하기

㉔은 상대의 처지를 이해하는 반응으로 ㉔ 뒤에 선생님의 말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의 답변을 유도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 것도 아니다.

[오답풀이] ① 학급 문집으로 바쁜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여 말하고 있다. ② 장소 배정이 쉽지 않다는 문제에 대하여 행사 장소에 따라 찾아오는 인원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원인을 추론하며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다. ③ 고개를 끄덕이는 긍정적 행위(비언어적 표현)를 통하여 ‘그렇겠지’라는 언어적 표현의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⑤ 예산은 정해져 있다는 상대의 말을 반복하면서 그의 의견에 동조하고 있다.

2. [출제의도] 말하기의 적절성 파악하기

대화의 흐름과 내용을 고려하면 장소가 넓고 쉽게 찾을 수 있는 특별실은 연극이나 댄스 동아리에 배정하고, 외진 곳에 배정받은 전시 동아리는 추가적인 금전 지원 없이 학생들이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근거로 볼 때, 가장 적절한 방법은 외진 곳을 배정받은 동아리가 눈에 잘 띄는 홍보 게시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오답풀이] ①, ②, ③ 연극이나 댄스 공연 동아리는 장소가 넓은 특별실에 배정해야 한다는 대화의 흐름에 어긋난다. ④ 외진 곳에 배정받은 전시 동아리에 추가로 금전적 지원을 한다는 것은, 금전적 지원을 추가로 할 수 없다는 글의 내용에 어긋난다.

3. [출제의도] 토론 과정 이해하기

‘반대2’는 상대 주장의 허점을 찾아 반박하고 있다. 발언 내용에서 상대의 주장을 요약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오답풀이] ① ‘사회자’의 첫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찬성1’은 스스로 묻고 답하는 방식을 두 번 사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④ ‘찬성2’는 상대방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면서 발언을 시작하였다. ⑤ ‘반대1’은 설문 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였다.

4. [출제의도] 논리적 오류 파악하기

전체 중에서 일부인 프랑스의 사례를 모든 나라의 특징인 것으로 일반화하고 있는 오류를 [A]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런 논리적 오류를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한다.

[오답풀이] ② 이런 논리적 오류를 ‘논점 이탈의 오류’라고 하며 [A]와는 무관하다. ③ 이런 논리적 오류를 ‘순환논증의 오류’라고 하며, A와는 무관하다.

④, ⑤ 이성 대신에 감정이나 의지 등을 앞세워 주장을 펼칠 때 생기는 오류들로, [A]와는 무관하다.

5. [출제의도] 토론의 필수 쟁점 파악하기

해결 방안을 밝힌 부분에서 법적인 장치의 마련, 기업의 변화 등을 제시하였으나 어느 것이 더 근본적인 것인지 밝히지는 않았다.

[오답풀이] ① 이력서의 개념을 ‘찬성 1’의 입론 중 네 번째 문장에서 밝혔다. ② ‘찬성 1’의 입론 다섯 번째 문장과 여섯 번째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실제 몇 개 기업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⑤ 실력을 중심으로 인재를 뽑는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6~10] 작문

6. [출제의도] 글쓰기 계획 구체화하기

‘학생의 글’은 청소년 영화제 현장의 모습을 공간적 순서에 따라 제시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1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④는 3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4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7. [출제의도] 자료 활용의 적절성 파악하기

‘동아리 대표 인터뷰’ 중 ㉔에서 구체적인 난관이, ㉔에서 그것을 자체적으로 극복한 원동력이 나타난다.

8. [출제의도] 글쓰기 전략 파악하기

[학생의 초고]에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이 언급되지 않았다.

[오답풀이] 1문단에서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상황을 제시하여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였다(④). 2문단에서 ‘공감’의 개념을 먼저 정의한 후(②), 동정과의 차이점을 밝혀(③) 그 의미를 구체화하였다. 또한 2, 4문단에서 구체적 사례를 활용하고 있다(⑤).

9. [출제의도] 조건에 맞게 글쓰기

③의 경우, 첫 문장은 주장에 해당하며, <보기>의 주제 의식을 반영하였다. 두 번째 문장은 주장의 근거에 해당하고, 세 번째 문장은 그 주장에 따른 효과이다.

[오답풀이] ① 근거-주장-효과 순이다. ② 근거-주장 순으로 되어 있으며, <보기>의 주제 의식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 ④ <보기>의 주제 의식은 반영되어 있으나, 근거(앞의 두 문장)-주장 순이고 효과도 없다. ⑤ 주장-근거-효과 순이나, <보기>의 주제 의식이 반영되지 않았다.

10. [출제의도] 고쳐 쓰기

㉔의 ‘그런데’는 ‘또한’으로 고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 글의 흐름상 적절하다. ‘그런데’는 전환을 나타내는 접속어이고, ‘또한’은 첨가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어이다.

[오답풀이] ① ‘논과 귀로’에 호응하기 위해서는 ‘보고 들으려’로 고쳐야 한다. ② 문장의 흐름상 피동표현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느끼는’이 적절하다. ④ ‘회피하다’는 ‘하기를 꺼려 선택 나서지 않다’는 것으로 문맥상 적절하지 않으므로 ‘벗어나다’ 또는 ‘탈피하다’ 정도가 적절하다. ⑤ ‘누군가에’는 이어지는 ‘섬뜩한 마음’을 꾸미는 역할을 하므로 관형격 조사 ‘의’가 붙은 ‘누군가의’가 적절하다.

[11~15] 문법

11. [출제의도] 표준 발음법 파악하기

㉔의 ‘꽃잎’은 [꽃닙](제29항)→[꼰닙](제18항)으로, ㉔의 ‘색연필’은 [색년필](제29항)→[생년필](제18항)로 음운이 바뀌어 발음된다. 따라서 <보기1>의 두 조항이 모두 적용되었다.

[오답풀이] ㉔의 ‘식용유’는 [시콩유]로 발음되므로 제29항과 연음이 적용된 사례이고, ㉔의 ‘직행열차’는 [지캥널차]로 발음되므로 제29항과 거센소리되기가 적용된 사례이다. 따라서 ㉔과 ㉔에는 제18항이 적용되지 않았다.

12. [출제의도] 불규칙 활용 이해하기

‘치르다’는 ‘치르+어→치러’와 같이 활용하는데, 여기서 ‘-’가 탈락한다. 이것은 일정한 환경에서 예외 없이 ‘-’가 탈락하는 일반적인 음운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으므로 규칙 활용에 해당한다. 반면 ‘호르다’는 활용할 때 ‘호르+어→홀러’와 같이 모음 어미 앞에서 어간의 ‘르’가 ‘ㄹㄹ’ 형태로 변하는 ‘르’ 불규칙 활용이므로 ㉔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① ‘낫다’는 모음 어미 앞에서 어간의 ‘ㅅ’이 탈락하는 ‘ㅅ’ 불규칙 활용에 해당한다. ② ‘엿듣다’는 모음 어미 앞에서 어간의 ‘ㄷ’이 ‘ㄹ’로 바뀌는 ‘ㄷ’ 불규칙 활용에 해당한다. ③ ‘하다’는 어간 ‘하-’ 뒤에 어미 ‘-아’ 대신에 ‘-여’가 붙는 ‘여’ 불규칙 활용에 해당한다. ⑤ ‘파랗다’는 ‘ㅎ’ 불규칙 활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ㅎ’으로 끝나는 어간 ‘파랑-’에 어미 ‘-아’가 올 때 어간과 어미가 모두 변해 ‘파래’가 된다.

13. [출제의도] 문장의 종류 이해하기

㉔은 ‘영수는 학교로 가 버렸다.’와 ‘영수는 말도 없었다.’가 결합된 문장이다. 이때 안근문장인 ‘말도 없다’는 안은문장의 서술어인 ‘가 버렸다’를 수식하고 있는 부사절이다. 따라서 부사어인 ‘학교에’를 수식한다는 것은 잘못된 설명이다.

[오답풀이] ① ‘키가 매우 크다’가 서술절로, 안은문장의 주어인 ‘영수’를 서술한다. ② ‘꽃이 핀’이 관형절로, 체언인 ‘사실’을 수식하여 의미를 제한하고 있다. ④ 명사절인 ‘공원에 가기’의 주어는 ‘영수’으로 안은문장과 동일하다. ⑤ 인용절인 ‘빨리 오라’는 안은문장의 주어인 ‘영수’의 말을 따온 것이다.

14. [출제의도] 높임 표현 이해하기

‘제가 할머니를 모시고 왔습니다.’라는 문장의 종결어미 ‘-습니다’를 통해 상대를 높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객체에 해당하는 ‘할머니’를 높였다는 것을 특수 어휘 ‘모시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종결어미 ‘-어요’가 붙은 형태이므로 상대를 높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그 외의 높임 표현은 확인할 수 없다. ③ 객체가 지시하는 대상인 ‘할아버지’를 높였다는 것을 조사 ‘께’와 특수 어휘 ‘드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종결어미 ‘-어’가 붙은 형태이므로 상대는 낮추어 표현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종결어미 ‘-죠’는 ‘-지요’의 줄임말로 이를 통해 상대를 높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선어말어미 ‘-시-’를 통해 주체를 높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장에서 객체 높임은 쓰이지 않았다. ⑤ 종결어미 ‘-어’를 통해 상대를 낮췄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조사 ‘께서’와 선어말어미 ‘-시-’를 통해 주체를 높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5. [출제의도] 담화의 맥락 이해하기

㉔은 언어적 맥락을 중심으로 상대방의 발화를 이해한 것이다.

[오답풀이] ① ‘영수’의 발화는 ‘조금 춥다’라는 앞선 두 사람의 발화를 상황 맥락을 중심으로 이해한 것이다. ② ‘철호’의 발화는 “나도 조금 추워!”라는 앞선 자신의 발화를 ‘영수’가 상황 맥락을 중심으로 정확히 이해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③ ‘선휄’의 발화는 “조금 춥구나!”라는 앞선 자신의 발화가 언어적 맥락을 중심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⑤ ‘승객 1’은 “내립시다.”라는 앞선 자신의 발화

를 ‘승객 2’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자 언어적 맥락을 중심으로 자신의 발화가 이해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하였다.

[16~19] 과학

<출전> 러셀 외, 「생명과학」(재구성)

개관 : 이 글은 ‘섬생물지리 평형설’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먼저 새로운 종의 이입률과 기존 종의 멸종률이 평형을 이루는 과정을 설명한다. 또 섬의 면적, 육지로부터의 거리가 이입률, 멸종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평형 시에 종 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설명한다. 끝으로 이 학설의 한계와 영향을 제시하고 있다.

16. [출제의도] 글쓰기 전략 파악하기

섬생물지리 평형설을 구성하는 요인들을 2문단, 3문단에서 소개하고, 마지막 문단에서 한계와 의의(영향)를 밝히고 있다.

[오답풀이] ① 학설의 변화 양상을 통시적으로 고찰한 내용은 찾을 수 없다. ② 학자들의 연구 계기가 1문단에 드러날 뿐, 발생 배경을 여러 관점에서 분석하지는 않았다. ④, ⑤ 하나의 학설을 이루는 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복수의 학설이 등장하지는 않았다.

17. [출제의도] 세부 정보 파악하기

두 번째 문단 마지막 문장에서 이입률과 멸종률이 같아질 때 평형 상태에 놓이게 되고, 종 수가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 유지한다고 했다. 이입률과 멸종률이 같다는 것이 이입과 멸종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답풀이] ① 1문단에 드러난다. ②, ③ 2문단에 드러난다. ④ 4문단에 드러난다.

18. [출제의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기

[A]에 따르면 큰 섬이 작은 섬보다 이입률이 더 높고 멸종률이 더 낮아, 종 수가 더 많다. 또 육지로부터 가까운 섬이 먼 섬보다 이입률이 더 높아 종 수가 더 많다. 거리는 멸종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라’는 ‘다’와 더불어 면적이 가장 작고, ‘나’와 더불어 육지에서 가장 멀다. 가장 작고 먼 섬이므로 네 섬 중에서 이입률이 가장 낮다. 또 거리가 같은 ‘나’보다 면적이 작으므로 멸종률이 ‘나’보다 높다.

[오답풀이] ① ‘가’는 멸종률이 가장 높은 것이 아니라 가장 낮다. ② 거리는 멸종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나’가 ‘라’보다 멸종률이 높다고 할 수 없다. ③ 면적이 작은 ‘다’는 면적이 큰 ‘가’보다 멸종률이 높다. ⑤ ‘가’는 종 수가 가장 많고, ‘라’는 종 수가 가장 적다. 따라서 ‘가’와 ‘라’의 종 수 차이는 ‘다’와 ‘라’의 종 수 차이보다 많다.

19. [출제의도] 단어의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에서 ‘이르다’는 ‘어떤 정도나 범위에 미치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것은 ㉠이다.

[오답풀이] ② ‘기준을 잡은 때보다 빠르거나 앞서다.’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③ ‘고자질하다.’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④ ‘어떤 장소나 시간에 닿다.’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⑤ ‘책에 쓰여 있거나 예부터 말하여지다.’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20~22] 기술

<출전> 「하이브리드 자동차」(재구성)

개관 : 이 글은 최근에 친환경차로 주목받고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 소개하는 글이다. 1문단에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개발하게 된 배경을 언급하고,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와 달리 전기모터를 함께 장착한다는 구조적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2문단에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핵심 구성요소들의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3문단에서는 차량 속도나 주행 상태에 따라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4문단에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장·단점과 그 의의에 대해 언급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20. [출제의도] 세부 정보 파악하기

4문단을 보면, 무공해를 지향하는 전기자동차나 수소연료전지자동차가 일반화될 때까지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중요한 운송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전기자동차에서 수소연료전지자동차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의 운송 수단으로 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 2문단을 보면, 하이브리드 자동차에는 전력이나 전기모터를 제어하는 모듈이 장착되어 있다. ② 2문단을 보면,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만드는 방법에 따라 구동 방식이나 구조상 차이가 있다. ④ 4문단을 보면,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구조가 복잡해서 차량 정비에 어려움이 있다. ⑤ 3문단을 보면,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차량 속도나 주행 상태 등에 따라 내연기관 엔진과 전기모터의 힘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

21.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2문단을 보면, 전기모터가 발전기 역할을 할 때는 회전 에너지를 전력으로 바꾸어 배터리를 충전한다. 그리고 3문단을 보면, 감속할 때(㉠)는 연료 공급이 중단되어 엔진이 정지되고 전기모터는 배터리를 충전한다. 즉, 전기모터가 배터리를 충전할 때는 전동기가 아니라 발전기 역할을 한다.

[오답풀이] 3문단을 보면, ① 시동을 걸 때(㉡)는 전기모터만 작동한다. ② 가속할 때(㉢, ㉣)는 전기모터가 엔진을 보조한다. ③ 저속 정속 주행할 때(㉤)는 전기모터만 작동하고, 고속 정속 주행할 때(㉥)는 전기모터와 엔진이 함께 작동한다. ⑤ 정차할 때(㉦)는 엔진이 자동으로 정지한다.

22. [출제의도] 인과관계 추리하기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근본적으로 배기가스를 배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연기관 엔진을 사용하여 연료를 연소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오답풀이] ① 동력 성능이 뛰어나며 ㉠의 이유와는 무관하다. ③, ④ 지문을 통해 확인할 수 없다. ⑤ 전기모터는 엔진의 역할을 도와주기 때문에 배기가스의 발생을 줄여준다.

[23~26] 사회

<출전> 맨큐(N. Gregory Mankiw), 「맨큐의 경제학」(재구성)

개관 : 이 글은 국제 거래와 관련되는 여러 환율 중에서 명목환율과 실질환율을 소개하고 있는 글이다. 명목환율은 한 나라의 통화가 가지는 대외적 가치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실질환율은 한 나라 상품의 국제적인 가격경쟁력을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각 국제 거래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23. [출제의도] 서술상 특징 파악하기

2문단에서는 명목환율에 대해서, 3문단에서는 실질환율에 대해서 각각 개념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예를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오답풀이] ① 명목환율과 실질환율을 경제학적으로 설명하고는 있을 뿐, 다양한 관점에서 살피고 있지는 않다. ② 명목환율과 실질환율의 유용성은 밝혔으나 단점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③ 명목환율과 실질환율의 일반적 의미를 설명하고 있을 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다. ⑤ 명목환율과 실질환율의 변화 과정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24. [출제의도] 세부 정보 파악하기

2문단 마지막에서 명목환율은 ‘한 나라의 통화가 가

지는 대외적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며 3문단 마지막에서 실질환율은 ‘한 나라 상품의 국제적인 가격경쟁력을 측정하는 데’ 이용된다고 하여 서로 다른 쓰임새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무엇이 무엇을 대체한다고 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 2문단 첫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4문단 세 번째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1문단 첫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3문단 마지막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25.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1월과 비교할 때 7월에 우리나라 A상품의 가격이 미국의 A상품 가격에 비해 더 크게 상승하였으므로 원/달러 실질환율은 하락하게 된다. 이는 ③과 ④의 원/달러 실질환율 계산값이 1(1월)에서 0.5(7월)로 하락하는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원/달러 명목환율은 1달러와 교환되는 원화 단위를 표시하는 방법이다. ② 1달러와 교환되는 원화가 1,000원에서 1,100원으로 명목환율이 상승하면 원화의 가치는 하락한다. ③ A상품의 1월 원/달러 실질환율은 $\frac{1,000}{1} \times \frac{3}{3,000} = 1$ 로 계산할 수 있다.

이는 미국 A상품 1kg당 우리나라 A상품 1kg이 교환된다는 의미이므로 두 나라 통화 간 상대적인 구매력은 같다고 볼 수 있다. ④ A상품의 7월 원/달러 실질환율은 $\frac{1,100}{1} \times \frac{4}{8,800} = \frac{1}{2}$ 로 계산할 수 있다. 이는 미국 A상품 1kg당 우리나라 A상품 0.5kg이 교환된다는 의미이므로 우리나라 A상품이 미국 A상품보다 2배 비싸다고 할 수 있다.

26. [출제의도] 단어의 사전적 의미 파악하기

㉠의 ‘경향’은 ‘현상이나 사상, 행동 따위가 어떤 방향으로 기울어짐’을 의미한다. ②의 ‘어떤 일이나 현상을 앞장서서 이끌거나 안내함’은 ‘선도(先導)’의 의미이다.

[27~30] 인문

<출전> 이인식, 「통섭과 지적사기」(재구성)

개관 : 이 글은 ‘통섭(consilience)’의 주창자인 윌슨의 주장과 이에 대한 인문학자들의 논의를 정리한 글이다. 윌슨의 통섭은 자연과학의 입장에서 인문학을 포섭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를 지행하는 ‘환원주의’는 모든 대상을 자연과학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태도이다. 그러나 인문학자들은 자연과학과 인문학의 연구 대상, 연구 방법상 차이점을 근거로 그러한 주장이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27. [출제의도] 세부 정보 파악하기

3문단에서 인문학자들은 인문학의 대상과 자연과학의 대상이 동일하게 취급될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물체의 낙하는 중력만으로 설명이 가능하지만 인간의 낙하는 중력보다는 인간의 의도와 목적이 더 중요하게 개입된다고 보았다.

[오답풀이] ① 윌슨은 현상의 원인을 자연과학적 법칙이라는 일관된 관점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② 1문단과 5문단에서 윌슨이 통섭을 통해 현대 인류가 당면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5문단에 제시되어 있다. ⑤ 3~5문단에서 윌슨의 통섭을 불가능한 것으로 보는 인문학자들의 입장이 드러난다.

28. [출제의도] 글의 내용 추론하기

‘환원주의’는 통섭의 전제로 인문학이 자연과학으로 포섭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이끌어낸다. 곧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는 자연과학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자연과학의 입장에서 현상을 이해하려는 태도라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환원주의는 자연과학의 입장에서 인

문학을 이해하려는 것으로 인문학적 속성과는 무관하다. ② 복잡한 대상을 구성하는 근본적 요소를 밝히려는 것으로, 이는 본질의 변화와는 무관하다. ③ 관찰과 실험을 통해 객관적 본질을 파악하고자 한다. ⑤ 모든 대상을 자연과학의 입장에서 동일하게 바라봄으로써 인간만이 갖는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29.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 활용하기

2문단에서 월슨은 자연과학으로 인문학을 포섭하는 통섭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인문학의 하나인 심리학의 문제를 뇌 과학으로 설명하는 사례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②, ④ 기술이 가져온 변화이다. ③ 생물학이 밝혀낸 사실이다. ⑤ 인문학이 가져온 변화이다.

30. [출제의도] 사례에 근거하여 추론하기

그림 속 화가는 모델을 관찰하여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그의 관심은 모델의 형상이 아닌 모델의 동선에 있다. 이처럼 관찰의 결과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그림 속 화가의 태도는 인문학자들의 대상 인식과 닮은 점이 있다.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대상이 다르게 인식된다는 것은 인문학적 대상 인식이라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화가는 모델의 움직임을 자신의 관점에서 스케치하였다. ③ 화가는 대상을 자신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으므로 모델의 객관적 실체를 관찰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④ 화가가 대상을 분명하게 인식하기 위해 주관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관점은 자연과학의 입장이다. ⑤ <보기>에서 화가의 스케치는 낙서가 아닌 모델의 동선에 초점을 두고 그린 그림이므로 본질과 무관한 그림을 그리고자 했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31~33] 현대시

<출전> 최두석, 「성에꽃」 / 고재중, 「첫사랑」

개관 : 최두석의 「성에꽃」은 새벽 시내버스의 창가에 피어난 성에꽃을 통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서민들의 삶의 아름다움을 전달하고 있다. 성에꽃의 아름다움에 취해 있으면서도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다.

고재중의 「첫사랑」은 눈이 나뭇가지에 눈꽃을 피우는 모습을 통해 사랑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인내와 헌신을 통해 이루어낸 사랑의 고귀함을 전달하고 있다.

31. [출제의도] 표현상의 공통점 파악하기

(가)에서는 ‘막막한 한숨이던가’, ‘정열의 숨결이던가’, ‘친구여’ 등에서 영탄적 어조가 드러나고, (나)에서는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황홀 보아라’ 등에서 영탄적 어조가 나타나 있다. 두 작품 모두 이를 통해 대상에 대한 화자의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풀이] ② 공감각적 심상은 (가), (나) 모두 사용되지 않았다. ③ 음성 상징어는 (나)의 ‘싸그락 싸그락’(의성어), ‘난분분 난분분’(의태어)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반어적 표현은 (가)와 (나) 모두 사용되지 않았다. (가)는 ‘차가운 아름다움’에, (나)는 ‘아름다운 상처’에 역설적 표현이 사용되었다. ⑤ (나)에 ‘보아라’처럼 명령형 표현이 사용은 되었으나 화자의 의지가 아니라 정서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다.

32. [출제의도] 시의 내용 이해하기

화자가 성에꽃을 정성스레 지우는 것은 서민들의 삶에 대한 애정을 지녔던 친구의 얼굴을 떠올리기 위한 행위이다. 따라서 현실의 벽에 부딪혀 무력감을 느낀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엄동 혹한일수록’ 더 아름답게 피어나는 성에꽃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② ‘어제 이

버스를 탔던 / 처녀 총각 아이 어른 미용사 /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의 ‘입김과 숨결’이 만나 이루어낸 성에꽃에서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있다. ③ ‘어느 누구의 막막한 한숨이던가 / 어떤 더운 가슴이 토해 낸 정열의 숨결이던가’에서 서민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드러나며, ‘전람회에 온 듯’ 다니며 ‘차가운 아름다움’에 심취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⑤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으나 / 지금은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여’에서 친구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다.

33. [출제의도] 시구의 의미 이해하기

‘마침내 피워 낸 저 황홀’은 나뭇가지가 아니라 눈의 노력으로 피워 낸 눈꽃이며 그 눈꽃에 대한 화자의 반응(기쁨)을 의미한다. 화자가 눈꽃의 아름다움에 대한 경탄을 드러내는 것이다.

[오답풀이] ① 눈이 눈꽃을 피우기 위해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수백 번’ 한다고 제시되어 있으므로, <보기>의 눈이 눈꽃을 피우기 위해 인내하는 과정에서 시련을 겪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② ‘다 피우어 준 다음에야’는 <보기>에서 눈이 눈꽃을 피우기 위해 헌신하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④ ‘한 번 텐 자리’는 눈꽃이 녹은 자리이며 봄꽃이 피어나는 자리이므로 고귀한 사랑의 바탕으로 볼 수 있다. ⑤ ‘아름다운 상처’는 봄이 되어 가지가 눈꽃이 녹은 자리에 피워 낸 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보기>의 봄이 되면 나뭇가지가 피워내는 아름다운 꽃으로 볼 수 있다.

[34~36] 현대소설

<출전> 박완서, 「배반의 여름」

개관 : 이 작품은 주인공 ‘나’가 더운 여름날 겪었던 배반의 에피소드 세 가지를 회상의 형식으로 그리고 있다. 제시문은 아버지에게 가졌던 ‘나’의 기대와 믿음이 무너지는 두 번의 사건을 보여 주고 있는데, 어린 ‘나’는 이러한 배반을 경험한 순간 큰 충격을 받지만 아버지에 대한 오해와 앙심이 풀리면서 내적 성장을 이루어 나간다. 이 작품은 만물이 성장하는 시기인 여름과 소년의 성장이 대응되어 작품의 구조적 완결성을 높이고 있다.

34. [출제의도] 서술상 특징 파악하기

이 작품은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서술해 나가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설정되어 있다. 서술자는 어린 ‘나’의 시각에서 등장인물과 자신에게 닥친 상황에 대한 심리 반응을 직접 드러내고 있다.

[오답풀이] ② 시대적 상황을 묘사하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 ③ 동일한 사건을 여러 인물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건을 한 인물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다. ④ 과거 사건을 회상하는 형식으로 제시되어 있어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나’의 입장에서 자신에게 닥친 상황을 주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35. [출제의도] 감상의 적절성 파악하기

<보기>에 따르면 ‘나’의 내적 성장은 배반을 경험한 이후 아버지에 대한 오해와 앙심이 풀리면서 이루어진다고 서술되어 있다. ㉞은 아버지의 사회적 지위를 확인한 직후 ‘나’가 받은 충격으로 인해 아버지의 웃음소리를 ‘우상이 깨지는 소리’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내면적 성장을 바탕으로 아버지의 웃음소리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아버지의 존재에 대한 기대감으로 물을 털 무서워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믿었던 아버지에서부터 던져진 ‘나’의 배반감을 드러낸 진술이므로 적절하다. ③ 아버지에 대한 배반감 때문에 수영을 배우게 되고, 이를 통해 물에 대한 공포도 사라지고 아버지에 대한 오해와 앙심도 풀리게 된다. 그러

므로 아버지에 대한 배반감이 ‘나’의 내적 성장의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④ 건물의 자동문에 대한 어린 ‘나’의 인식을 드러내는 서술로, 시중꾼을 찾는 행위는 아버지의 사회적 지위가 높을 것이라 기대한 ‘나’의 행동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36. [출제의도] 장면의 특성 파악하기

[A]는 ‘나’가 아버지의 직장이 있는 동네에 내린 것이 ‘나’가 아버지를 따라나온 것을 후회하는 심리를 유발하는 계기가 되며, [B]는 ‘쫓오다 티가 더러더러 나는 남자’의 등장이 ‘나’의 심리 변화를 유발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오답풀이] ① [A]와 [B] 모두 과거형 진술로 되어 있다. ② [A]와 [B] 모두 배경에 대한 묘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③ [A]에는 ‘나’의 심리적 갈등이 나타나지만, [B]에는 인물의 행위만이 제시되어 있을 뿐 인물 간 갈등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⑤ [B]는 아버지의 행동을 묘사하여 인물의 성격을 드러낸다고 볼 수도 있지만, [A]는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37~39] 고전시가

<출전> 허난설헌, 「규원가」

개관 : 이 작품은 가부장적 유교 질서 속에서 남편을 기다리며 독수공방하는 외로움과 남편에 대한 원망을 노래한 가사이다. 흐르는 세월 속에 쌓여온 슬픔과 한을 다양한 표현방법과 고사를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드러낸 규방가사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37. [출제의도] 시구의 의미 이해하기

㉞에서 건우직녀는 일 년에 한 번 칠월칠석에라도 만나기 때문에 화자와 동일한 처지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

[오답풀이] ① ‘백마금편’에서 임의 화려한 모습을 언급하고 있고 ‘어디어디 머무는고’에서는 거처를 알 수 없는 임에 대해 걱정하고 원망하는 심정이 드러난다. ② ‘매화’가 ‘몇 번이나 피여 진고’에서 세월이 많이 흘렀음을 알 수 있다. ③ ‘가을 달’과 ‘실술’에서 계절이 가을임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화자의 외로운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④ ‘간장이 구국 되어’ 끊어졌다는 것은 과장된 표현이고, 이를 통해 임으로 인하여 마음에 시름과 한이 쌓였음을 알 수 있다.

38. [출제의도] 소재의 기능 파악하기

‘야유원’은, ‘새 사람이 나단 말가’에서 집을 나간 임이 새로운 사람이라도 나타나서 그곳에 머물고 있지 않을까 화자가 추측하는 공간임을 알 수 있다. ‘부용장’은, ‘적막하니 뉘 귀에 들리소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화자가 임의 부재함을 느끼고 있는 공간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야유원은 화자가 지향하고 있는 공간을 확인할 수 없고, 부용장은 화자가 벗어나려 하고 있는 공간을 확인할 수 없다. ② 야유원은 임이 화자를 기다리고 있는 공간이 아니고, 부용장은 화자가 임을 기다리고 있는 공간이다. ④ 야유원은 화자가 아닌 임이 타인들과 어울리는 공간이고, 부용장은 화자가 타인들로부터 벗어난 공간임은 확인할 수 없다. ⑤ 야유원은 화자가 임과 이별과 만남을 반복하는 시련의 공간이 아니고, 부용장은 화자가 임과 이별 후에 도피한 공간이 아니다.

39. [출제의도] 다른 작품과 비교하여 감상하기

[A]에서는 ‘풀 속에 우는 증생’, ‘새소리 더욱 설다’에서 청각적 심상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지만, <보기>에서는 청각적 심상 자체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A]와 <보기> 모두 첫 행에 꿈에서라도 임을 만나기를 바라고 있다. ② [A]는 마지막

행의 ‘님의 닻으로 살동말동 하여라’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책임을 임에게 돌리고 있고, <보기>는 일곱 번째 행의 ‘님의 닻이로다’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책임을 임에게 돌리고 있다. ④ [A]의 화자는 임 가신 데를 바라보며 서러워하고 있지만, <보기>의 화자는 죽어서라도 임을 따르겠다며 임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A]의 화자보다 적극적으로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⑤ <보기>에서는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지만, [A]에서는 ‘죽림 푸른 곳에 새소리 더욱 설다’에서 ‘새’에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여 서러운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40~43] 고전소설

<출전> 작자 미상, 『금우태자전』

개관 : 이 작품은 석가모니의 전생을 소설화한 영웅소설이자 전기소설로 전형적인 영웅소설과 달리 여러 화소가 복합되어 있는 작품이다. 내용은 서역국의 태자가 태어나자마자 다른 왕후들의 시기로 버려져 갖은 시련을 겪다가, 금송아지로 환생하여 다시 본래의 모습과 신분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40. [출제의도] 서술상 특징 파악하기

‘이때를 당하여 보만후 어찌 모해에 빠진 줄 알리오’, ‘이런 몹쓸 무리가 어디 있으리오’, ‘이 소는 하늘소로 태자를 위하여 내려와서 태자 구하고 하늘에 오를 소더라’ 등의 구절로 볼 때, 인물과 상황에 대해 서술자가 개입하여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인물이나 행동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액자 구조는 나타나지 않는다. ④ 인물간의 대화는 나타나나 그것을 통해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지는 않다. ⑤ 꿈 속 장면은 나타나지 않는다.

41. [출제의도]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A]는 태자가 수리의 밥이 되었을 것이라는 사건을, [B]는 태자를 구유에 넣으면 소가 잡아먹을 것이라는 사건을 예측하여 채란이 양후를 안심시키고 있다. [오답풀이] ① [A]는 상황을 과장되게 표현하고 있지 않다. ② [B]는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을 가정하고 있고, 상대를 속이는 것도 아니다. ③ [B]는 타인의 행동을 원망하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 ④ [A], [B] 모두 화자가 의도를 직접 드러내고 있다.

42. [출제의도] 사건의 흐름과 의미 파악하기

양후 몰래 채란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양후의 명령에 의해 채란이 태자를 산에 버리고 오는 것이다. [오답풀이] ① 보만후는 태자를 직접 보았던 경험에 대해 생각하나 양후와 채란이 진실을 숨기며 말하고 있다. ③ 백학이 태자를 호위한 것을 보고 태자의 비범함을 알게 된 채란이 양후에게 그것을 알리고 있다. ④ 양후는 태자가 범상한 아이가 아니어서 후에 누군가가 태자를 구하여 자신들에게 후환이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다시 궁으로 태자를 데려오라 채란에게 명령한다. ⑤ 채란이 생각한 계교대로 소가 태자를 삼키자 기뻐하고 있다.

43. [출제의도] 인물이 처한 상황 이해하기

‘양후’는 자신들이 남을 해하려고 한 것 때문에 근심이 생겼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이 한 말과 행동에 자신이 구속되어 괴로움을 당함’이라는 뜻의 ‘자승자박(自繩自縛)’이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곁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거리낌 없이 함부로 말하고 행동함을 뜻한다. ③ 절망에 빠져 자신을 포기하고 돌아보지 않음을 뜻한다. ④ 곁과 속이 다름을 뜻한다. ⑤ 남의 권세를 빌려 위세를 부

리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44~45] 수필

<출전> 김소운, 『특급품』

개관 : 이 작품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바둑판을 소재로 하여, 흠이 있으면 가치가 떨어진다는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흠터가 있는 비자반이 오히려 특급품으로 인정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범하게 되는 과실에 낙담하지 않고 비자반처럼 유연하게 이겨 낼 때 보다 성숙한 삶을 살아가 수 있다는 교훈을 주는 수필이다.

44. [출제의도] 서술상 특징 파악하기

흠터를 스스로 치유하여 특급품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비자반의 독특한 성질을 보여주며 우리의 인생도 과실이 있다면 그것을 슬기롭게 극복해서 인격적으로 성숙해야 한다는 교훈을 전달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현실 세태에 대해 비판하고 있지 않다. ③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고 있지 않으며 삶의 의지도 다지고 있지 않다. ④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인지 알 수 없고, 자신이 알고 있는 비자반의 특성을 통해 깨달은 점을 전달하고 있어 객관적이지 않다. ⑤ 대상을 다각적으로 관찰하고 있지 않고, 다양한 의미를 밝히기보다는 통념과는 다른 대상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

45. [출제의도] 세부 정보 파악하기

특급품은 비자반이 균열을 스스로 유착·결합하여 균열의 흔적이 머리카락 같은 가느다란 흠터가 보이는 것이다.

[오답풀이] ① 비자나무 바둑판은 유연성으로 인해 높은 가치를 가진다. ② 불측의 사고는 반면이 갈라지는 것으로 어떤 경우라도 환영할 것이 못 된다. ③ 일등품은 특급품과 치수와 연륜에서는 차이가 없다. ⑤ 목침감은 회복될 수 없을 만큼 균열이 커서 바둑판으로서의 가치를 잃게 된 것이다.